

[목회자 모임]
십자가로 가는 길 - (3)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12장, 13장)

2020. 4. 24. 이현래 목사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3장이다. 11장에서는 나사로 사건이 생겼다. 이것이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이적을 행하는 길에서 마지막 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더 이상 다른 이적이 있겠는가? 그것이 끝이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가 필요하다. 복음서를 보면 거의 80%는 이적인데, 다른 분들과 다른 점은 그 점이다. 석가모니나 공자님을 보면 석가모니는 수행의 길이 중심이 되어 있고, 공자는 사람들과 대화가 주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다는 데는 없다. 그래서 제자들은 생이지지(生而知之), 즉 나면서부터 다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가졌는지 모른다.

예수님은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또 수양했다는 것도 없다. 갑자기 목수 일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일하다가 나타나신 분이다. 그런데 이분의 행적은 거의 이적이다. 이적을 빼놓고 나면 없다. 이런 이적에 대해서 신화라고 빼버리고 나면 사실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볼트만이 기독교론을 말하기 위해서 비신화학 문제를 내놓았다. 과학적인 현대인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대신에 나타난 것이 없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적을 행하신 이분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그 기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해왔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 만에 살렸다는 데까지 왔다. 이런 후의 결과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놀랍다고 하면서 따라왔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안 죽이면 안 되겠다, 저런 사람을 놔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다른 길로 가시는 것이다. 서로 길이 달라졌다. 크게 말하면 예수님과 사람들은 길이 다르다. 그것을 알 수 있다. 길이 다르니까 동문서답 격이 되고, 말이 있어도 그것이 다 왜곡될 수밖에 없다. 척도가

다르다면 말이 맞겠는가? 서울과 부산 간을 어떤 사람은 500km라 하고, 어떤 사람은 480km라고 한다. 두 사람 다 정확하게 재었고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재도 둘은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백날 맞춰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렇다. 이편 말과 저편 말은 완전히 같은 문제를 두고 다른 말을 한다. 입장이 다르고 척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일부러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거짓말을 일부러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거짓말을 하기 쉬운 것도 아니므로 다 참말을 하는데, 길이 다르니까 같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여기서 아담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 다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누구의 말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길이 다르면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봐야 할 것 같다.

나사로 사건만 보더라도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요13:3)고 되어 있다. 또 큰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와서 예수를 환영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12:13)라 하고 난리가 났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한 수 배우자고 찾아와서 ‘선생님, 선생님!’ 하는 판이 되었다. 그는 아주 인기 절정에 오른 셈이다.

우리가 생각하면 인기가 절정에 올랐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다. 향유를 부으니까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요12:7)고 말했다. 듣는 사람이 ‘저게 무슨 소린고?’ 할 수밖에 없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군중이 에워싸니까 나귀새끼를 타고 오셨다(요12:15)는 것이다. 제자들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분이 오실 때는 나귀새끼를 타고 온다고 했으니까 바로 저분이 그분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메시아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오늘날도 똑 같다. 오늘날도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헬라인들이 뵈자고 찾아왔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런데 예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요12:24)는 이야기를 하셨다. 지식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전혀 반대되는 말이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요12:25)는 말씀을 하셨다.

희랍인들의 생각은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를 얻어서 좀 잘 살아볼까? 이것이 아니었겠는가? 안 속고 살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멸망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버리면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는 말이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다. 그러므로 헬라인들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지혜를 구해서 자기가 살려는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목숨을 버리면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를 섬기려면~”(요12:26)이라고 했는데, 종교적으로 말하면 ‘나를 존경하려면’ 이런 말이 된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요12:26)라고 했다. 이것은 너희와 나는 길이 다르다. 내 길로 와야 나와 같이 있지 내 길이 아니면 어떻게 같이 가겠는가? 이 말이다.

우리가 보통 선생을 만나면 배우는 것이다. 선생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배워서 나도 좀 도움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뭔가를 가르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나를 따르라. 나에게 배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예배하려면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는 하려고 애를 쓰는데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세상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기어코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목사도 있다. 얼마나 그것이 충성스러운가!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그것도 말이 된다. 어떤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말이 되지 않은가? 죽음도 같이 죽겠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를 안 들리다니 그게 말이 되겠는가?

옛날에 주*철 목사는 신사참배 때문에 옥에 갇혔다. 신사참배를 왜 안 했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본 신사에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닌가?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었다.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도 되고, 예수님께 대한 충성도 되었으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헬라인들은 사실 지금 사람들이다. 지금의 현대 문명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합해진 것이라고 한다. 한쪽은 예배, 종교, 계율, 이런 세계이다. 다른 한쪽은 지혜, 지식, 이런 세계이다. 이 둘이 결합해서 소위 서양이 주도하는 현대 문명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배우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요12:26)고 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는 말이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요12:26)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요12:27)라고 했다. 이렇게 환영이 절정에 이르렀는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하고 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핍박에서 벗어나고 승리했다. 핍박하는 자들을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도 그렇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셨겠는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요12:27)라고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교가 될 때는 이보다 훨씬 더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야 우리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따라 오고 해 봤자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런데 국교가 됐을 때 황제가 예수 앞에 절을 하고 이럴 정도가 되고, 황제가 명령하면 모든 백성이 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알고 보면 세상을 바꿨다. 세상을 뒤집었던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서 이제는 내가 안식해도 되겠다고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요12:27)라고 했겠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황제가 예수께 예배를 했다는 것을 굉장한 승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황제가 예수를 알고서는 도저히 경배할 수가 없다. 사자가 어린 양 앞에 와서 절을 하겠는가? 그것은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다. 황제의 길과 예수의 길은 아주 다른 길이다. 전혀 다른 길이다.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먼 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망각해

버리면 금방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만다. 세상에 동화된다는 말이 디스코텍에 가서 춤을 춘다는 그 말이 아니고 세상의 길로 가 버린다는 말이다. 핏박을 받고 멸시 받고 무시 받던 그 사람들이 황제가 예수를 믿고 국교를 세우고 했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하겠는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그때 예수는 뭐라고 했을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요12:27)라고 한다. 바로 이 문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때다. 지금까지는 아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면면히 흘러왔지만 이렇게까지는 극명하게 달라지지 않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달라질 때가 왔다는 말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져야 한다. 다른 것이어야지 비슷하게 따라가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다. 그렇다고 골통 예수쟁이 처럼 된다는 말도 아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길이 전혀 다르다.

전에 한 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처음에 대구에 왔을 때 얼마 있다가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교회인지 교단인지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했다. 나를 싸움꾼으로 알았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4년 동안 내가 있던 교단과 대치를 하다가 나왔으니까 그때 그 친구는 나를 보고 이 사람이 오면 무슨 지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나는 그때 길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다. 알고 보면 피치 못할 친구고, 나를 이끌어준 친구고, 정말 중요한 친구다. 그리고 내 문제 때문에 그 친구도 내가 있던 교단에서 나온 사람이고, 그 후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자리에 못 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3일간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편지를 썼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내가 정말 도저히 갈 수 없는 사람이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무 멀어서 도저히 거기에 갈 수가 없네. 길이 먼 게 아니고 세계가 너무 멀어서 거기에 내가 갈 수가 없네. 미안하네.’ 그렇게 편지를 썼다. 그때는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멀었다. 그때 나는 그것을 처음 느꼈다. 내가 이렇게 멀리 떨어졌는가, 이렇게 내가 먼 세상에 와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이런 입장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얼마나 거리가 먼 이야기겠는가? 모두가 와서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자기 자신과는 거리가 멀었겠는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나를 위로하던 친구들이고, 내 편이 되어서 같이 싸워주던 친구들이다.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는 것이다. 너무나 길이 달라서 갈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어서 정말로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썼다. ‘도저히 내가 갈 수가 없네. 자네와 나의 의리를 생각하면 몇 번이라도 가야 하지만 도저히 갈 수가 없네. 미안하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겼다는 말이 그때 알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멀리 왔구나. 멀리 옮겨졌구나. 전혀 다른 세계에 내가 와 있구나. 정말 친한 친구였다. 죽마고우다. 이웃집에 사는 친구였고, 우리 동네에서는 유일하게 신학을 해서 나보다 먼저 목회자가 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때 불러내서 자기가 다닌 학교에 날 입학하도록 해 준 친구다. 그러니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그런데도 세계가 다르니까 도저히 안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한다. 이렇게 환영을 했으면 맨 발을 벗고 서라도 뛰어나가서 환영해야 할 일인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요12:27)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요12:32)라고 말하고 있다. 어떤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요12:32)

지금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 않은가? 내가 땅에서 들렸을 때 이끄는 것이다. 들리면 이끌겠다는 것이다. 땅에서 들리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버리면 허탕을 치는 것이다. 전혀 엇박자이고 길이 다르다. 철로가 다르면 똑 같은 기차라도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이다. 철로가 다르면, 길이 다르면, 그것을 노선이라고 한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이 그냥 기도해서 그분과 함께 간다는 것이 아니다. 그분과 같은 노선에 있다는 뜻이다. 아담의 노선이냐? 그리스도의 노선이냐? 이 노선 안에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이 노선에서 말이다. 이 노선에서 보지 않으면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 충성심이 좋은 사람, 이렇게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 노선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노선 안에서 연단을 받고 있구나. 노선 안에서 지금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다. 그 노선에서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2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 같지만 이 노선을 보면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보면 허송세월이다. 자기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간교한 외삼촌의 손에 걸려서 결국은 도망쳐 나와야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노선에서 보면 그 사람은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구나.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구나. 하나님도 보시기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구나. 그렇게 보인다.

우리 인생도 어느 노선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분명히 내 인생을 실패하게 했던 것, 망하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갑자기 축복으로 바뀌겠는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길이 바뀌면 그것이 축복으로 된다. 길이 안 바뀌지면 순간적으로 ‘감사합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도로 마찬가지로. 용수철이 원점으로 돌아가듯이 도로 마찬가지로. 그런데 길이 달라지면 영원토록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다. 신기하지 않은가? 그런데 신기할 것도 없다. 길이 달라서 그런 것이니까 신기할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길이 달라서 이해를 못한 것이다. 그 사람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길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왜곡이 되어 버린 것이다. 기껏 충성한다고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가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기독교만큼, 아니 기독교 밖에 없다. 예수를 좋아하고 따르는 종교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데 왜 변하지 않는가? 그분을 모르기 때문이다. 아무리 해도, 향유를 붓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선생님 하고 찾아와도 안 된다. 길이 다르니까 안 된다. 다른 것이 없다. 그 사람들이 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존경심이 부족하고 섬기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길이 다른 것이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요12:26) 예수님은 함께 가자고 왔지 가르쳐 주시려고 온 분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는 것이지 그냥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점이다.

부처(석가모니)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겠는가? 공자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겠는가?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한 것이 별로 없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록을 뽑아서 보면 몇 마디가 되는가? 별 것이 없다. 그보다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진리에 관한 말, 지혜에 관한 말, 이것이 꼭 차 있다. 성경을 보다가 그런 책을 보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옛날에 한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성경을 우습게 생각한 이유가 그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학문이라고 하는가? 배울 게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는 다른 데도 다 있는 것이다.

예수는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다.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요12:26),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요12:32)라고 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7:39)는 말이 7장에 나온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요7:38)고 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요7:39)고 했다. 여기서 영광 받는 것이 들린다는 말이니까 영 다른 뜻의 말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요12:35)고 했다. 그러면 이것은 캄캄한 곳이라는 것이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도 좋은 일이지만 캄캄한 것이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오는 것도 캄캄한 것이며,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도 캄캄한 것이라는 것이다. 밤중이다. 밤중에 뭘 해봤자 뭐가 되겠는가? 서로 안 보이고 캄캄한데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장님이나 눈 뜬 사람이나 매 한가지가 아닌가? 캄캄한 밤이 되면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 같다.

모세가 만났던 뻥뻥한 구름은 시커먼 구름이다. 나는 시커먼 구름을 처음 봤다. 육지에서는 그런 것을 못 본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그런 것을 본다. 제주에서 5.16도로를 타고 한라산을 넘어가는 길에 그런 것이 덮친다. 한 번은 서귀포를 갔다가 넘어오는데 갑자기 앞에서 시커먼 구름이 덮는데 아무 것도 안 보인다. 아주 캄캄해져 버린다. 바로 앞에서 차가 와도 헤드라이트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도저히 운전을 하고 갈 수가 없다. 그때 영호 형제와 돌이 오는데 할 수 없어서 멈추었다. 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캄캄한 것을 그때 처음 보

왔다. 밤도 그렇게 캄캄한 밤은 처음 보았다.

흑암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빛이 없으니까 그렇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요12:35) 어둠에서 사랑을 하니 충성을 하니 하면서 애를 쓰고 있다. 악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둠이니까 모르니까 그렇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을 놔두면 큰일이라고 했다. 빛이 없으니까 다 캄캄한 속에서 하는 이야기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요12:36) 잠시 동안 빛이 어디 있는가? 예수가 빛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이 다니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세상은 전체가 어둠이라는 뜻이다.

아담이 동산을 떠났을 때, 그때 아담에게는 이것이 어둠이다. 하나님의 동산이 빛이라면 바깥은 어둠이다. 아담이 하는 짓은 자기도 뭘 하는지 잘 모른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었다고 선언했다. 하나님 주었는데 둘이 싸워서 형이 아우를 죽이겠는가? 그것이 캄캄한 속이다. 하나님이 주었는지 자기가 만들었는지 모른다. 왜 저런 아들이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자기가 한 행동이 왜 저 행동이 나왔는지 자기가 모른다. 왜? 캄캄하니까 모르는 것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했다. 아담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캄캄한 것이다. 결과를 보니까 캄캄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문제이고 세상의 문제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상한 말이 나온다. 13장을 보면 떡을 주면서도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니까 “**주여 누구니이까.**”(요13:25) 했다는 것이다. 요한에게 네가 좀 물어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했으면 판다는데 물어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 판다는 말이 희랍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말인데, ‘내어주다’ ‘맡기다’ 심지어는 ‘인도하다’는 뜻까지 있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서로 우왕좌왕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족석에서 예수님도 직설적으로 저놈이 나를 팔 것이라고 했으면 누가 물

어보겠는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말을 한 것이다.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것이 팔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 그때 당시로는 돈 받고 판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제자들이 돈을 맡아있고 명절이 왔으니 유월절 엿새 전 이니까 뭘 준비하라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말을 그렇게 함부로 했겠는가? 너희 중에 한 놈이 나를 팔아먹을 것이라고 했겠는가? 뒤에 보니까 그때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것이다.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제자들도 그때 암담해졌다. 이것이 모든 일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13:36)하는 질문이 나왔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13:36) 이것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13:36) ‘쿠오바디스 도미네(Quo Vadis Domine)’하는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왔다. Where are going now?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목숨이라도 버리고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드물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죽는데도 같이 가고 옥에도 같이 갈 것인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이다. 어디로 가는가? 출애굽을 해서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이다. 광야로 나왔는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상식적으로는 열 사흘길이면 간다는데, 밤낮 헤매고 있으니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겠는가? 구름기둥이 뜨면 뜨고, 불기둥이 뜨면 뜨고, 아니면 앉아 있다. 길이 없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길이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 편한 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막막한 일이다. 내 생각이 없이 있으라 하면 있고 가라고 하면 가면 너무 쉽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다. 길을 알아야 어디를 갈 것이 아니겠는가? 일주일은 쉬고 일주일만 가라고 하면 좋은데, 언제 설지 언제 갈지를 모른다. 군대 가있는 사람도 20개월이면 나온다고 하니까 하고 있는 것이지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하면 군대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할 것이다.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우리는 학제가 있어서 대학 4년 나오면 학사, 대학원 3년 나오면 석사, 거기서 3년 하면 박사,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은 미국식이고 유럽식은 지금도 담당교수 마음에 달렸다고 한다. 논문을 써 가지고 가면 이것 좀 고쳐야 되겠다고 하면 1년이 간다고 한다. 고쳐

오는데 1년이 걸리니까 10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가버린다고 한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유학 간 사람들은 한 세월이고 언제 올지 모른다. 유럽에서 학위를 받아 온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하다.

옛날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어떤 교수가 바젤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왔는데 자부심이 대단하다. 미국에서 받아온 것은 인정도 하지 않는다. 김*동 교수도 공부한다고 갔는데 가보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1년 있다가 돌아왔다. 거기 있었으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교수가 못 된다. 그런데 돌아와서 여기서 한 것이 너무 잘되었다. 바로 잘 맞아서 나오자마자 교수로 들어갔다. 하나님은 인도하신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경대 나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교수 된 사람이 없다. 유럽이나 비슷하다.

이 황막한 광야에서 언제 어떻게 한다는 말이 없으니 모세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모르고 다 모른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밖에는 모른다.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아들을 준다고 처음부터 그랬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단 100살은 보장이 된 것이다. 100살에 아들을 주었으니 좋아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100살은 사는 것이고, 100살에 아들을 준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곧 줄 것처럼 해놓고 안 준 것이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어서 꿈수를 써봤는데도 안 된다. 그때는 완전히 녹다운 되어서 13년 동안 아무 계시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 와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혀 생각지 않을 때였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데 믿음이 어디 있는가?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사라의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한다.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고 픽 웃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삭을 주었다.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분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길을 찾느라 그렇다. 군대에서 재식훈련을 하는 것이 총 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잘 쏘야 하는데 재식훈련을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런데 왜 재식훈련을 하는가? 머리를 바꾸려고,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 이것이 군대다.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네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것

을 가르치려고 재식훈련을 하는 것이다. 독재 국가일수록 더욱더 재식훈련을 많이 시킨다. 명령 절대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각으로는 명령에 절대복종할 수 없다. 전쟁터에 죽으러 가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가겠는가? 못 간다. 완전히 혼을 빼놓아야 군대생활하지 그렇지 않으면 군대생활은 생지옥이다.

우리가 길을 찾아들어왔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늦게 가든지 잠자고 가든지 길은 그 길에 있어야 한다. 다른 길로 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다. 길이 다르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13:36)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됐다.’고 하겠는가? 아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요13:36)고 하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희망이 생겼겠는가? 이런 판에 다음에는 따라온다 하더라 하고 희망이 생겼겠는가? 절망이다. 왜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지를 모른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은 그것이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요13:36)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아주 많이 들어와 있다. 돌아가갈 수 없도록 들어와 있다. 좌우지간에 돌아가갈 수 없도록 들어와 있다. 얼마를 갔든지 간에 돌아가갈 수 없도록 들어와 있다면 됐다.

고추로 심어진 것은 고추가 되고, 가지로 심어진 것은 가지가 된다. 한번 심어진 것에 따라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갈수도 없다. 돌아가려고 해도 안 된다. 되지도 않는다. 우리를 다른데 박아 놓았다. 이것은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어째서 내가 이런 길에 왔을까? 지금 이 나이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비극인가?

옛날 같으면 천당이라고 믿을 것인데 천당도 믿기 어렵다. 천당 믿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 천당 소리를 할 수도 없다. 지금도 열심히 천당 소리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다.

가는 길이 다르다. 우리가 한 차를 탔으면 거기서 뛰어내리면 죽는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다. 죽으나 사나 그 차에 타고 앉아 있어야 가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어째서 이런 길로 인도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어찌하여 나를 여기 갖다 놓았습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된다. 너무나 신기하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저절로 다 풀린다. 물론 성경을 읽기는 많이 읽어야 하지만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다.

내가 맨 처음에 <주의 형상을 닮아>라는 책을 볼 때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가? 이 생각이 들었다. 아브라함도 모르는 말을 이렇게 하는가?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을 더 잘 아는 것 같았다. 신기했다.

주님은 나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한다. 누가 나를 알겠는가?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꿈수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이다. 누가 나를 알겠냐고 숨어 있는 것인데 예수를 만나면 내가 다 노출되어서 폭로가 다 되고 만다. 폭로가 다 되니까 숨으려고 해도 숨을 데가 없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창2:25) 그것이다. 벌거벗었으나 폭로가 되어서 부끄러울 것인데 부끄럽지가 않다. 그것이 신기하다. 세계가 전혀 다르다. 아담의 세계에서 누가 내 속을 건드리면 얼마나 불쾌한가?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감사하다고 할 사람이 없다.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목사가 교인들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다 떨어져 나가고 없다. 그저 잘한다고 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 앞에 와서 벌거벗고 보니까 내가 너무 편해지고 너무 쉬워진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창2:25) 우리가 너무 이상한 세계에 왔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도 아니고 이상한 세계에 와 있다. 잘 보라. 남이 전혀 모르는 세계에 와 있다. 똑같은 지구상에서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이 모른다. 밤에 일어나서 왜 찬송을 하는지 모른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을 했다고 하는데, 왜 찬송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너무 신기한 세계이다.

세상은 화려하고 풍부하고 다 있고 어디서 인정받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깜깜한 어둠속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저 감사

할 일밖에 없다.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캄캄한 데서 헤맬 텐데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요13:21)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 왜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가? 팔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성경에는 가롯 유다를 도둑놈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둑놈이 아니다. 도둑놈이면 삼십 냥인가 삼백 냥인가를 챙기지 도로 성전 궤에 갖다가 던지고 가겠는가? 왜 던졌는지, 왜 넘겼는지, 가롯 유다의 마음이 알아졌다. 너무 막막하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고, 캄캄한 속에서 엉뚱한 소리나 하니까 이 사람의 정체를 알고 싶은 것이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인가? 언제는 오병이어서 5천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고 깨우던 사람이 들려야겠다느니 죽어야겠다느니 하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자기는 바쁘다. 지금 자기는 뭘 할 해야 하니까 바쁘다. 시간은 흘러가고 장관이라도 못할 바에는 빨리 정리하고 다른데 가야 한다. 정당생활 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느낄 것이다. 이놈의 정당이 집권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집권을 못할 바에는 빨리 적을 옮기자는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성질 급한 놈이 뭘 저지른다.

가롯 유다는 내가 생각할 때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다. 예수를 보고 따라온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따라왔겠는가? 그리고 돈 궤를 맡았으면 상당히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누가 돈을 맡기겠는가? 그런데 가롯 유다에게 돈을 맡겼다는 것을 보면 가롯 유다는 그래도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재정을 맡기는데 아무에게나 맡기겠는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세상으로 볼 때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 내가 이것을 여기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한다. 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내가 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면장이라도 해먹을 것인가? 이것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진 것이다. 그랬는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정죄가 되었다. 사형이 언도 되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진실로 진실로 후회를 하고 그 돈을 연보 궤에 던지고 그리고 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요13:38)는 말을 들었는데도 가야바 법정에서 가서 보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고 했다. 가롯 유다는 팔고 베드로는 모른다고 했다. 세 번 모른다고 하니 닭이 울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야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하고 깜짝 놀랐다.

그렇다고 회개했는가? 회개한 것이 아니었다. 너무너무 월통해서 온 것이다. 대성통곡을 하고 가버렸다. 만일 정말로 회개를 했다면 다시 들어갈 사람이다. 베드로가 두려워서 못 들어갈 사람이 아니다.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답답해서 우는 것이다. 저 사람은 나를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을 모르는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이제껏 따라왔는데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는가? 수제자답게 언제든지 앞장서서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어찌겠는가? 그래서 울었던 것이다. 회개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진실로 회개하고 목매달아 죽었다. 가롯 유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세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팔았다. 돈이 탐나서 판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써놓았지만 돈이 탐나서 예수를 판 것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사람이 머리를 참 잘 썼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길이 다르니까 머리를 쓴 것이 자기가 죽을 길로 머리를 쓴 것이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13:36),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요12:26) 이것이 예수와 우리의 길이다. 우리가 지도 놓고 가는 것이 아니다. 교리를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 아니다. 정통노선이 따로 있고, 이단노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없으면 이단이다. 예수 없으면 그냥 사이비다. 비슷하지만 아닌 것이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13:36) 발을 씻기면서 위로했다.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라는 것만 봐서는 소용이 없다.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다. 나도 세족식을 해보았다. 어느 교회에 가니까 세족식을 하여 괜찮아서 나도 발을 내놓았더니 닦아주었다. 괜찮다. 목사가 세수 대야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인들 발을 다 닦아주는데 해보면 괜찮다. 성찬식 하는 것보다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교회를 가봤는데 좋게 보여서 해봤다.

그런 것을 해서는 소용이 없다. 떡을 먹어봐도 소용이 없고, 밭을 짓어 봐도 소용이 없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요13:36) 언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죽고 난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때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